

# 영광군 “상무대 군 간부 민간숙소 유치” 온힘

## 강종만 군수 ‘상생 협력’ 논의 영광군, 주거정책 등 정보공유

강종만 영광군수가 육군 최대 군사전문 교육시설인 상무대 군 간부 숙소를 영광군으로 유치해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강종만 군수는 지난 15일 상무대 육군보병학교를 방문해 박원호 학교장과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육군보병학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영광군 주거정책과 인구정책, 현역 간부 민간숙소 이전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상무대에선 영내 군 간부 시설 노후화와 군무원 신규채용 증가로 인근 민간숙소 거주 희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간담회에서 상무대와 영광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관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현재 상무대가 소재한 지역은 민간 숙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상무대 측은 부대와 지근거리에 다양한 문화·관광·체육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수도권과 광주 등 대도시와 접근성,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 주변생활 여건과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영광군을 군 간부 민간숙소 이전지로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은 군 간부, 군무원, 장교, 부사관 등 현역 군 관계자와 교육생을 비롯한 가족 등이 연간 최대 1000여명 가량이 주거를 목적으로 영광 관내로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호 육군보병학교장은 “학교와 영광군 간 소통채널을 정례화하고 민·군·관 문화체육행사 등 교류를 이어갈 경우 지역 발전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종만 군수는 “현역 군 간부들의 민간숙소 이전을 위해 영광군의 다양한 정보



강종만(오른쪽 세 번째) 영광군수가 15일 상무대를 방문, 박원호 육군보병학교장과 군 간부 숙소 이전 방안을 협의했다. 영광군 제공

를 제공하고 군무원에게 LH 보금자리 행복주택 입주방안 등 주거정책을 지원·검토해 많은 군부대 관계자가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무대는 1952년 설립된 우리나라 육군 최대 군사전문 교육시설로 7개 병과학교와 2개 지원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광주에서 장성군으로 이전한 가운데 상주인원은 6200명, 교육대상자는 연 4만1000명에 달한다. 영광=김도윤 기자

라 육군 최대 군사전문 교육시설로 7개 병과학교와 2개 지원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광주에서 장성군으로 이전한 가운데 상주인원은 6200명, 교육대상자는 연 4만1000명에 달한다. 영광=김도윤 기자

##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화순군, 승용차·화물차 각각 60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60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430만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37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 창평농협 미국 수출 딸기 상차식 담양군, 수출기업 등 협력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창평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미국 수출용 딸기 상차식을 개최했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상차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농업기술원 박흥재 원장, 농협중앙회 박종탁 전남지역본부장, 창평농협 정원실 조합장, 창평새벽이슬딸기공동선별출하회 윤일호 대표, 광수 영농조합법인 김현성 대표,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 박진성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담양 딸기는 맛과 당도가 좋아 국내 유통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게 형성돼 수출용 딸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안정적인 유통 판로 확보를 위해 담양군과 생산 농가, 수출 기업 등이 협력해 이번 수출이 성사됐다.

이번에 선적된 담양 딸기는 미국 수출용 1000kg 중 1차 물량 100kg으로 미 동부지역 현지 프리미엄 마켓에 납품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해 담양군이 개발한 죽향과 메리퀸을 미국 조르디사와 통상계약하고 미국 품종보호출원을 추진하는 등 담양 딸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며 “다양한 수출 전략을 세워 담양 딸기 세계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 곡성군, 주방 클린업 지원 추진

곡성군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클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의 닳트, 가스렌지, 바닥, 벽면 청소 등 주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0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별 최대 100만원까지 청소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곡성지역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영업주가 대상이다.

곡성군은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음식점을 선정한다. 전문 청소업체 업체에 의뢰해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맞춤형 주방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이 지난 15일 창평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미국 수출용 딸기 상차식을 가졌다. 담양군 제공

## 곡성,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5개년 대책 용역 추진

곡성군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

곡성군은 지난달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것을 토대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용역을 통해 곡성군은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은 ‘지역 및 인구 여건 분석’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비전 등을 수립한다.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사업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 산출과 연도별 확보계획, 특례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도 발굴한다.

용역 수행기관은 오는 5월까지 인구현황과 지역 여건 분석,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상철 군수는 “용역을 통해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에 맞는 전략 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며 “청년층 유입 등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지역 인구는 지난해 기준 2만 5422명으로 65세 이상 9193명(36.2%), 15세~64세 1만4364명(56.5%), 0~14세 1865명(7.3%)이다.

총 1만2761가구 중 1인 가구가 5307가구(41.6%)로 가장 많았으며 2인 4396가구(34.4%), 3인 1687가구(13.2%), 4인 이상 1371가구(10.7%) 순이다.

청년 유입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 곡성군, 학교급식 공급업체 옥과농협 선정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지난 15일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곡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개최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곡성군의회, 교육지원청, 학부모 대표, 급식단체, 생산

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학교 규모별로 지원 단가가 달라지는 차등 지원 의무 실시에 따른 차등 지원 비율을 조정 의결했다.

심의 결과 쌀과 부식류 등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로 옥과농협이 선정됐다.

옥과농협에서는 올 해 1년 간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2개교

를 대상으로 총 6억3000만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 가공품을 공급하게 된다.

이귀동 부군수는 “친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 시에 발생하는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 청소년운영위원 15명 모집 화순군, 3월10일까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3월10일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지역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15명으로 구성하며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참여, 주인의식을 확대하기 위한 참여기구이다.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화순군청청소년문화의집 누리집(http://hwasunyouth.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phs0318@korea.kr) 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 재난 복구 민·관 공동대응 구축 담양군, 건설기계협회 협약 등



담양군이 재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긴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동원을 위해 (사)건설기계협회명명사업자협의회 담양지회, 담양군 건설기계협회와 재난 대응·복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병노 군수와 이승하 건설협 담양지회장, 이호림 담양군 건기협 회장을 비롯해 각 협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복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다양한 장비와 인력풀을 갖고 있는 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담양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